세상을 보는 송호인의 눈

발행인 이기평 | 주간교수 이은경 | 편집장 김미지
주소 25242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남산로 210 송호대학교
이메일 songhonews@songho.ac.kr
홈페이지 www.songho.ac.kr
2015년 9월 18일 금요일 | 9호

송호신문 창窓

호텔외식조리과 실습학기제 독일 산업체에 8명 참가



◇독일에 파견되어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의 모습

우리대학교 호텔외식조리과에서 2015학년도 실습학기제가 시작됨에 따라 8명의 학생들이 독일로 파견됐다.

파견된 8명은 두 팀으로 나뉘어져 7월과 8월에 각각 파견됐다. 학생들은 독일의 한국교포가 운영하는 레스토랑과 호텔에서 실습 하고 있다.

호텔외식조리과 실습학기제란 2학년 2학기에 산업체에 투입되어 15주 동안 실습을 하고 학점을 취득하는 제도다. 단, 독일의 실습학기제는 10개월을 기본 근무기간으로 하며 워킹비자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실습학기제 참가학생의 선발방법은 서류전형과 면접전형(대면면접, 유선면접)의 과정을 거치게 되며 모집인원 초과 시 산업체 면접을 통해 선발하게 된다.

정삼식 학과장은 독일파견 실습학기제를 통한 효과에 대해 "취업으로 연계되며 산업체를 몇 개 선정한 후 학생들이 원하는 산업체를 선택할 수 있게 하며 강사를 초빙하여 한국요리는 물론 독일요리, 유럽의 요리체험, 퓨전스타일의 요리 등을 배울 기회가 부여된다. 또한, 독일어와 다양한 문화를 보고 배울 수 있다"고 말했다.

김한솔 기자

간호과 입학정원 증원



◇간호과학생들의 나이팅게일 선서식 모습

2016학년도 대입부터 간호과의 증원이 이루어진다. 현재 30명인 간호과의 입학정원이 26명 증원되어 56명을 선발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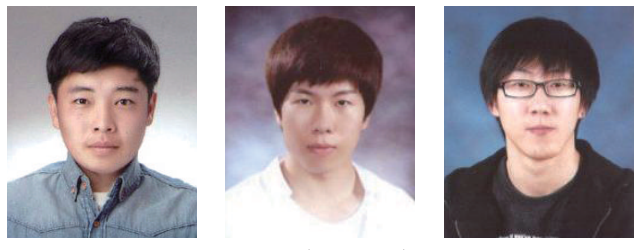
이번 간호과의 증원은 교육부의 엄격한 기준을 통하여 이루어진 쾌거로 우리대학교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대학교 간호과는 생명 존중을 위한 창의적 인성을 갖춘 전문 간호인재 양성이라는 교육목표 아래 질 높은 교육을 실현하고 있다.

또한 2015학년도 제 55회 간호사 자격시험에서 100% 합격을 이루는 쾌거를 달성하였으며 취업률도 100%를 지향하고 있다.

신재영 기자

방사선과, RI 면허 국가고시 합격자 최초 배출



◇RI 면허 국가고시 합격자 (왼쪽부터) 백민호, 손현수, 이환 학생이다.

우리대학교 방사선과가 '2015년 방사선동위원소취급자(RI)일반면허 국가고시'에서 2010년 학과설치 이후 최초로 합격자를 배출했다. 올해 전국 국가고시 평균 합격률은 18.8%에 그쳤으나 우리대학교는 졸업생 6명이 응시하여 백민호(방사선10), 손현수(방사선12), 이환(방사선 12) 학생 3명이 합격통지서를 받았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주관하는 방사선동위원소 일반면허 시험은 방사선동위원소의 취급 및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격을 부여하는 시험으로써 면허취득 시 대학, 연구소, 기업 등 방사선 물질을 이용하는 기관의 방사선 안전 관리자, 원자력 발전소, 대학병원 핵의학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방사선 전문 분야로의 진출 범위도 넓다.

우리대학교 방사선과는 우수한 교수진의 열정적인 강의와 현장의 살아있는 지식을 생생히 전달하는 전문가 초청 특강 등 최선의 노력을 기하고 있어 방사선사 국가고시에서 전국 평균보다 높은 합격률을 내었다.

전민지 기자



스포츠레저과, 전국대회서 6개의 상 수상



◇스포츠레저과 학생들이 수상을 한 후 찍은 단체사진.

우리대학교의 스포츠레저과가 '제 28회 학생종별 수상스키·웨이크보트·베어풋 선수권 대회' 그리고 '2015 전국남녀 종별 오픈대회'에서 6개의 상을 수상했다.

7월 초 영광의 불갑저수지에서 열린 대회에서 남자 대학부 단체 1위(하세호 3, 김진찬 1, 강진성 1)외 4개 종목(슬라롬, 트릭, 점프, 개인종합)에서 총 6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스포츠레저과 학과장(박영남 교수)은 "이번 대회를 대비해 서울 뚝섬에 위치한 송호대 레저스포츠 인재양성연구소에서 특훈을 강행했다"며 수상할 수 있었던 경위를 전했다.

또한 "우리대학교가 '2015 한국스포츠총장협의회 대학운동부 평가 및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더 나은 환경에서 훈련하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스포츠레저과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2015 한국스포츠총장협의회 대학운동부 평가 및 지원 사업'에 선정되었으며 3900만 원 가량의 지원금을 받았다.

'2015 대학운동부 평가 및 지원 사업'은 재정 지원을 통해 대학운동부 운영 환경 개선, 올바른 체육인 육성을 목적으로 경쟁력 강화를 이루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국 80개의 대학이 신청하였으며 그 가운데 대학운동부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평가하여 지원 대학을 선정한다.

김도연 기자

우리대학교 보육교사 보수교육 위탁기관으로 선정돼

우리대학교가 강원도에서 시행하는 '2015년도 보육교사 보수교육 위탁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이는 강원 도청에서 주관하는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위탁기관 선정공고에 따라 위탁기관신청서를 제출, 강원도 보육정책위원회를 통해 심의와 의결을 거쳐 선정되었다.

이번 교육은 6월 15일부터 7월 10일까지 진행하기로 하였으나 중동호흡기중후군의 영향으로 지연되어 7월 6일부터 7월 31일까지 진행되었다.

이번 보수교육에는 강원지역 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사와 원장 등 약 740명이 교육을 받았다.

보수교육은 1급 승급과정, 2급 승급과정, 특별영아, 보육교사, 원장일반, 원장사전직무 등으로 구분해 실시되었다. 승급교육 기간 중에 학교에서 다양한 시설(기숙사, 학교 반경 내 통학버스 운영, 식당이용)등을 제공하여 교육생들에게 편의를 제공했다.

특별 영아 강의를 들은 어린이집 교사 홍은숙은 "보수교육은 자격증 취득이후에 머무는 것이 아닌 꾸준한 공부와 노력이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현대사회는 교육도 사회문화적 흐름도 빠르고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는 직무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또 원장 직무교육을 받은 최용순 원장은 "이번 보수교육으로 인해 원장으로서의 역할과 직무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운 것 같습니다. 실제 교육현장과 이론이 많이 차이가 나긴하지만 그 차이를 좁혀나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로 제 자신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 뿌듯합니다. 더불어 더운 날씨에도 열정적으로 강의해주신 여러 교수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라고 전했다.

소선민 기자

대학행정 성과관리 추진계획

지난 7월15일 우리대학교(총장 이기평)는 올해 15주년을 맞아 대학행정 성과관리와 대학정책 행정수행에 따른 결과를 극대화하고 최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P-D-C-A 성과관리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PDCA'란 P(Plan 계획) D(Do 실행) C(Check 확인) A(Action 보완) 로 이루어져 있으며 계획하고 실행하고 확인하고 보완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이에 우리대학교는 교육부의 대학평가지표, 기관평가지표, 대학발전계획인 성과목표지표 등을 통해 지표별 중요성을 부여하고 그것에 따라 주기적으로 체계적인 평가를 실시한다.

또한 올해 각 부처별로 총 207개의 추진과제를 취합하여 이 중 중점 관리대상 10개, 전략지표 20개, 주요과제 40개를 선정해 체계적인 관리에 들어간다.

우리대학교 관계자는 "행정혁신(PDCA)은 학령인구감소, 대학구조개혁평가, 국가직무능력표준 등에 의해 교육과정 전면 개편 등으로 인한 교육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대학 경제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며 자체평가를 통해 끊임없이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도연 기자

취업에 강하다

우리대학교, 2015년 취업률 전국 36위

우리대학교 취업률이 2015년도 6월 1일자 대학정보공시 기준 63%로, 전국 36위, 강원권 전문대학 3위를 기록했다.

지난 2013년도에는 취업률 66.7%로 전국전문대학 139개교 중 31위였으며, 2014년도에는 취업률 68.4%, 전국전문대학 139개교 중 24위를 기록했다.

이러한 결과는 취업을 잘 할 수 있도록 구축해놓은 우리대학교의 프로그램에 있다. 우리대학교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 연속 청년취업진로지원사업에 선정되었고 교내에 취업지원관을 배치하여 학생들이 취업진로지도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 인해 학생들은 수시로 방문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었으며 취업지원관실에서도 취업캠프 등 다양한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었다.

또한, 학과별 특성을 살린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관광(대명)리조트과에서는 2학년생 전원이 (주)대명레저산업 인턴에 합격했다.

이들은 2학기 실습학기제를 마치고 2016년 6월에서 8월경에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호텔외식조리과에서는 2015년 초에 졸업생 1명이 체코대한민국대사관에, 2명이 독일산업체에 정직원으로 선발된 바 있으며, 2015년 2학기 실습학기제에도 8명의 학생들을 독일산업체에 파견하며 송호대의 글로벌 경쟁력의 가능성을 알렸다.

김미지 기자

중·장년 취업 아카데미 운영



◇중장년 취업아카데미 협약식 모습이다.

우리대학교 산학협력단이 '2015 중·장년 취업아카데미' 수강생을 모집했다.

이번 아카데미는 창업이 목표인 40세 이상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SNS, 맞춤형 창업훈련, 커리어 코칭 등의 내용을 진행한다. 교육은 18일부터 시작되며 책임자는 산학협력단의 박영남 단장이다.

김미지 기자

새로운 대·부의원장이 선출되다



이 수 혁
대의원장



장 다 흰
부의원장

2014년에 선출된 대·부의원장의 임기 만료로 새로운 대·부의원장이 선출됐다. 선출방식은 학과 대표들로 구성된 대의원회의에서 과반수 득표를 얻은 학생으로 결정된다.

대의원장이 된 뷰티케어과 1학년 이수혁 학생은 "한 학기 동안 다녀본 결과 식당문제와 셔틀버스 문제로 학생들이 겪는 불편이 크다고 생각하여 임기동안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부의원장으로 선출된 간호과 2학년 장다흰 학생은 "앞으로 다가올 체육대회 준비와 임기 동안 학생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학생복지에 보다 적극적으로 힘쓰겠다"고 전했다.

또한 "대의원장과 함께 문제를 찾아 해결할 수 있도록 곁에서 도움을 주고 싶다"는 말도 남겼다.

임기는 1년으로써 내년 1학기까지이다. 돌아오는 11월 총학생회 회장·부회장 미선출시에는 올해와 같은 대·부의원장이 각 부장 및 차장과 함께 학교의 행사를 진행하게 되고 총괄업무를 맡게 된다. 대의원장은 등록금의 100%, 부의원장은 60%, 부장은 30%의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회장이 선출되게 되면 대의원장은 60%, 부의원장과 부장은 30%의 혜택을 받게 된다.

김효정 기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업무제휴 협약식

횡성군·송호대·횡성축협·케이프라이드간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업무협약식이 지난 9월 10일 횡성군청에서 열렸다.

협약식에는 한규호 군수, 엄경익 축협조합장, 박영남 송호대 산학협력단장, 서훈 케이프라이드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협약식은 지역 내 미취업 주민들에게 취·창업에 도움을 주고자 실시되었다.

김미지 기자

2016 수시 전문대학 입학정보 박람회 참가

'시종 뜨거운 열기로 가득, 사흘간 7만 여명의 인파가 몰려'



◇전문대학입학정보박람회에서 우리대학교를 소개하는 모습.

지난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사흘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2016년 수시 전문대학 입학정보 박람회'가 개최됐다.

이번 박람회는 우리대학교를 비롯한 전국 63개 전문대학이 참가했으며, 7만 여명의 전국 수험생과 학부모가 참석했다.

우리대학교는 교수들과 담당교직원들의 1:1 입시 상담을 통해서 학생 성적과 전년도 수시 데이터를 분석하여 제시하는 등 맞춤형 수시 입학 정보를 제공했다. 또한 학과소개, 졸업 후 진로 안내 등에 적극적으로 나섰으며 뷰티 체험 부스를 설치하여 많은 수험생들에게 네일아트를 제공해서 눈길을 끌었다.

홍보도우미 학생들은 학교 홍보, 장학안내 등을 했으며, 수험생들이 관심이 높은 분야의 학과에 지원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이날 수시 원서를 접수한 김지민 학생(19)은 "진로, 직업 및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았는데 교수님들과 직접 상담을 하니 진로를 결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또한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셔서 학과를 선택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다."며 "서울에 거주하기 때문에 통학이 불편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집 근처에 통학 버스가 다니고 기숙사 입사에 성적 제한도 없다고 하니, 이 점에서 안심이 된다."고 말했다.

전민지 기자

서울강서라이온스클럽, 재학생들에게 장학금 전달

지난 9월 3일 서울강서라이온스클럽 354-D지구에서 우리대학교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전달식은 우리대학교 교무위원 7명과, 서울강서라이온스클럽 전·현직 회장단 등 임원진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송호관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번 장학금의 수혜자는 소득분위, 성적, 학과장의 추천 등을 기준으로 6명을 선정하였다.

올해 강서라이온스로부터 기탁받은 장학금은 총 300만원이었으며 우리대학교의 발전과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을 선발하여 재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향상을 목적으로 6명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였다.

강서라이온스클럽 354-D지구는 우리대학교가 설립될 당시부터 현재까지 장학금 등으로 학교발전에 기여했다. 또한 지난 3년간 연속으로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으며 앞으로 외부 기탁단체 장학금으로써 고정적으로 자리잡아 재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지원이 계속될 전망이다.

김미지 기자

횡/성/소/식

둔내 고랭지 토마토축제

-횡성 한우 축제를 기다리며-



지난 8월 7일부터 9일까지 강원도 둔내에 위치한 둔내종합체육공원 일원에서 '둔내 고랭지 토마토축제'가 개최되었다. 둔내 토마토 축제는 '최고의 토마토와 최고의 즐거움이 함께하는 축제'라는 슬로건으로 개최되었다.

이번 축제에서는 다슬기 방류행사, 토마토풀장, 토마토 따기, 메기 잡기, 페이스페인팅, 비누 공예 등의 다양한 체험행사가 마련되었다. 또한 횡성한우, 토마토 등 다양한 농·특산품이 전시되었다.

또한 10월 7일부터 10일 11일까지 횡성한우축제가 개최될 예정이다. 횡성한우축제는 섬강둔치 일원에서 개최하며 메인행사로는 먹을거리마당, 한우문화마당, 지역홍보마당, 흥겨움 마당의 행사를 하고, 한우감시단 운영 머슴돌 경연대회, 만족불만족 리서치, 한우리가 편지를 보내요, 황금 횡성한우를 찾아라, 농경문화 이벤트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신재영 기자

횡성 저수지에 출몰한 피라니아

지난 7월 4일에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마옥리에 있는 마옥저수지에서 식인 물고기로 알려진 피라니아가 발견되었다. 이 제보를 접한 국립생태원은 우리나라에 한 번도 나타나지 않은 어종인 피라니아에 대해 연구를 목적으로 피라니아를 포획했다.

이어 국립생태원은 마옥저수지에 피라니아가 출몰한 원인은 개인이 키우다가 인위적으로 버렸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피라니아는 남미에서 주로 서식하는 어종이라고 알려져 있다. 또한 육식성 민물고기로, 식성은 야생에서 어류, 파충류, 포유류 등 가리지 않고 먹으며 무리 중에 약한 동족이 있으면 본능적으로 뜯어먹는다.

저수지에 있던 피라니아들은 국립생태원이 모두 포획해 지금은 안전한 상태라고 한다.

이번 횡성에서 발생한 피라니아 사건은 다행히 환경 피해나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관상용으로 키우던 물고기들을 생각 없이 방류하게 된다면 황소개구리나 배스의 경우처럼 우리나라 생태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생각으로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이다.

신재영 기자

동문탐방 최 연 우 jw메리어트호텔 근무 (호텔외식조리과 10학번)

"노는 것도 공부다"

"제발 놀아라. 대학시절에는 놀며 추억 쌓는 것이 최고다."라고 인터뷰 내내 이야기 하던 최연우 동문.
노는 것을 중요시 하던 그가 현재 유명호텔 주방에서 근무하기까지 그의 대학시절은 어땠는지 들어보았다.



◇최연우 동문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호텔외식조리과 10학번 졸업생 최연우입니다. 저는 현재 서울 동대문 JW메리어트호텔(JW Marriott hotel) blt 스테이크 레스토랑(blt steak restaurant)주방 hot 파트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제가 다니는 jw메리어트를 소개하자면 외국계 호텔인데 특히 blt스테이크는 뉴욕3대 스테이크 중 하나로 유명해요. 얼마 전 '수요미식가'라는 프로그램에 저희 업장이 나와서 손님들이 넘쳐날 정도로 유명해졌어요. 그만큼 힘도 들지만 보람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송호대에 입학하시게 된 계기는?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요리에 관심이 많아 호텔외식조리과 쪽으로 이곳저곳 수시를 넣었는데 그 중 송호대학교가 마음에 들어서 다니게 되었습니다.

-대학 생활은 어떠셨나요?

정말 재밌었죠. 처음 접하는 환경에서 지내는 걸 좋아하고,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특히 노는 걸 많이 좋아했어요. 그러다보니 교수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셨고 한편으로 관심을 가져주셨죠. 노는 걸 좋아하다보니 다른 과에 친구들도 많았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해서 학창시절에는 사실 공부보다는 노는 데에 정신이 팔려 있었어요. 지금은 교수님들이랑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땐 심각할 정도로 노는 걸 좋아했거든요. 사실 송호대 다니면서 '뭐하고 놀아?'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을 거 같은데 서울만큼은 아니더라도 정말 놀 거 많아요. 1학년 때도 재미있게 놀았는데 군대 다녀오고 2014년도에 2학년으로 복학을 해서 정말 더 재밌게 놀았던 거 같아요.

-송호대에 다니면서 기뻤던 점은?

서울에서만 살던 제가 타 지역에서 살아본 유일한 기회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만큼 재미도 있고 신기했어요. 위에 했던 이야기처럼 새로운 환경에서 지내보는 걸 무척 좋아하거든요. 일단 공기가 정말 좋았어요. 2010년도에는 여름밤, 학교에 반딧불이가 날아다녔는데 지금도 있을지 궁금하네요. 제일 좋았던 건 공기만큼은 횡성이 최고라고 생각해요.

-송호대에 다니면서 힘들었던 점은?

서울에서 살다보니까 처음엔 '여기서 뭘 하나…?' 싶었던 게 제일 힘들었어요. 그것도 잠깐이지만, 처음 부모님과 떨어져 지낸 것도 힘들었고요. 나중엔 노는데 미쳐 집에도 잘 안 갔지만 일단 집이 멀어서 조금 불편했어요.

-선배님께 있어서 송호대란?

사실 고등학생 때만 해도 대학에 갈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공부하는 것을 싫어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게 기회를 준 학교예요. 마음이 끌려서 오게 된 만큼 재밌었고, 행복했고, 제 인생에 기회를 더 줬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런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겠죠?

송호대는 30~40년 후에 제 20대 초반 하면 기억에 남을 몇 가지 중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인생의 전환점이랄까, 정말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아요.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후배님들 몇 분 빼고는 20대 초반일텐데 일단 정말 많이 노는 것을 즐기세요. 교수님들께는 죄송한 말이지만 정말 재미있게 놀고 추억도 만들고 사진도 많이 찍으세요. 개인적으로 20대에 노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졸업하고 직장 다니면 놀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일단 노세요. 단, 강의는 잘 들으시고요. 놀기도 최선을 다해서 놀고, 시험기간에는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하고 무엇을 하든 간에 최선을 다하세요. '노는 것도 공부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너무 놀기만 하지 말고 군대 가기 전, 졸업하기 전에 추억을 정말 많이 만들어 놓으세요.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대학시절 취업을 어떻게 할까 너무 걱정만 하느라 시간 보내지 마세요. 매일 놀고 술 먹고 하던 애가 특1급 호텔에 정식 입사하고 직장생활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후배님들! 공부도 열심히, 노는 것도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고 후회 없는 학교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놀지만 마시고 공부도 하세요!!

마지막으로 호텔외식조리학과 정삼식 교수님, 김나영 교수님 정말 감사하고, 조만간 다시 한번 찾아뵙고 제가 식사대접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외조 파이팅!!

아! 그리고 CC는 하지마세요. 친구로 남기세요. 감사합니다.

김한솔 기자



◇ 최연우 동문은 대학시절 친구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했다.

만학도 인터뷰

늦었지만 너무나 행복합니다

자신과 맞지 않는 전공을 과감히 포기한 후 알게 된 우리대학교 보건행정과에서 늦은 만큼 더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만학도 박영준 학생을 만나보았다. 그는 교수님들의 열정과 어린 친구들의 노력을 보고 우리대학교에서 열심히 해보겠다는 마음을 가졌다고 한다.
훌륭한 직업인이 되고자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박영준 학생을 만나보았다.



박 영 준
(보건행정과 2학년)

-입학 동기

고교 졸업 후 강원대학교에 입학했으나 전공이 나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자퇴 후 군대에 가게 되었습니다. 전역 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재수 학원도 다니며 일 년 동안 생활했습니다. 그러다 다시 공부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강원대학교로 다시 복학을 하게 되었습니다.하지만 선택학과가 제가 생각했던 것과 너무 달라서 다시 자퇴를 결정했습니다.

우리대학교를 알게 된 계기는 친누나가 직업상담사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직업이 없으신 분들이나 수험생들의 상담을 합니다. 누나가 상담을 하면서 여러 대학을 알게 되었는데 송호대학교 보건행정과가 유망하다고 하여 누나의 추천을 받아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대학 생활을 하며 느낀점

학교가 처음에 왔을 때 작고 외진 곳에 있어 조금 실망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니면서 수업을 듣다보니 전문대학교만의 메리트를 느꼈습니다. 교수님들이 수업하실 때의 열의와 학생들의 수업의 참여도를 보고 고등학교 3학년 교실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학생 개개인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힘든 학생들을 보면 다함께 이끌고 가시려는 교수님들의 마음 씀씀이가 좋았습니다.

-앞으로의 목표, 계획

학교를 다니면서 학기 초보다는 목표의식이 다소 흐려지기도 했습니다. 졸업반이어서 불안감도 크고 걱정도 많아집니다. 교수님들이 시키시는 대로 열심히 공부하여 획득할 수 있는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습니다. 좋은 병원에 취업하여 훌륭한 직업인이 되고 싶습니다.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주변 친구들을 보면 좋은 대학교를 나와도 취업을 못하고 노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친구들이 제가 학교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 진로가 보장된다는 점에 대해서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주변에는 더러 적성을 찾아 다른 학교로 다시 입학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자신의 적성과 진로에 맞는 학과에 진학했다면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두들 자신이 원하는 직업과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나중에 웃는 얼굴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김효정 기자

송호 캠퍼스의 새로운 얼굴을 소개합니다

학교 곳곳에 처음 뵙는 분들이 계셔 송호신문 기자가 찾아가 인터뷰를 했다. 인터뷰를 통해 새로 오신 교직원분들이 담당하시는 업무와 앞으로의 포부 등을 알아보고, 삶의 경험에 비추어 학생들에게 전하는 이야기를 현장에서 생생하게 들어보았다.
언제나 학교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애쓰시는 교직원분들을 만나보자.

김익홍 사무처장



1.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기계공학을 전공했습니다. 70년대에 우리나라가 중화학 공업 육성정책을 펼치며 한창 플랜트 해외 건설 붐이 일어났을 시기에, 중동에 직접 가서 플랜트 사업에 참여했고 중소기업에서 기계 및 펌프 개발을 담당하는 등 중화학 공업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그리고 93년 국내 처음으로 열전반도체를 이용한 김치냉장고를 개발하여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주목 받는 기업으로 경영을 하는 대표 자리에도 있었습니다. 그 후 총장님의 권유로 사무처장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개발, 생산, 제조, 판매, 건설, 경영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분야에서 꾸준히 쌓은 경험이 우리 대학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랍입니다.

2. 사무처장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요?
교수님들이 가르치시는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제반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사무처의 일입니다. 재무 회계, 건설·시설관리, 총무·인사 관리, 후생 복지 등의 다양한 일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들이 편안하게 가르치고 학생들은 자유롭게 활동하고 학습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하는 곳으로 교수님들의 요청, 학생들의 요청을 수렴해서 지원합니다. 교육 시설 설계·시공뿐만 아니라 의자가 필요하다거나 컴퓨터를 바꾸어 달라는 등의 요청을 검토해서 물품을 구비해주기도 합니다. 늘 좋은 환경에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3. 향후 목표와 계획이 있다면?
학교 발전을 목표로 삼아서 학교 곳곳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리고 낮은 자세로 섬기면서 일하되 주인 의식을 갖고 언제나 열심히 임한다면 학교가 계속해서 발전할 것이라 기대합니다. 현재 정부로부터 '교육부 특성화전문대학 육성 사업'에 선정 되어서 지원 받은 사업 자금 일부를 운용하여 우리 학교 시설물개조 및 보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4. 학생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2007년 9월부터 2008년 여름까지 송호대학에 사무처장으로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아침마다 직원들이 교내에 쓰레기 버리지 않기 캠페인을 벌일 정도로 쓰레기가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교내가 아주 깨끗할 뿐만 아니라 발전한 학생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학교라는 자부심과 긍지로 생활했기에 긍정적인 변화가 생겼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학생들이 배움터에 대해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바른 생활로 임하길 바랍니다.
또 하나는, 젊었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하잖아요. 세상에는 무엇이든 알맞은 때가 있다는 것을 자연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무엇이든 적절한 시기가 있는 법이고 배움의 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지요. 지금 이 알맞은 시기에 열심히 공부를 해서 나라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임상병리과 이은정 조교



1.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임상병리과 조교 이은정입니다. 이렇게 우리대학교 신문을 통해서 인사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횡성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강원대 관광경영학과를 졸업한 후에 일반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이번에 송호대학교 조교로 오게 되었습니다. 평소 학교와 관련된 업무를 하고 싶었고 제가 사는 지역에서 일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조교는 교수님, 학생들과 함께 지내며 학과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뿌듯함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되어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2. 조교님은 어떤 일을 하나요?
학과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여 학생들을 도와주고 교수님들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업무와 실험 실습실 관리 등을 하고 있습니다.

3. 평소 어떤 소신을 갖고 있나요?
'천재는 노력하는 자를 못 이기고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못 이긴다.'라는 말처럼 맡은 일을 즐기면서 하려고 합니다. 무언가를 진정 이루고자 한다면 즐기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무슨 일이든지 억지로 한다는 느낌이 들 때마다 나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내서 즐기며 한다면 좋은 결과는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4.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학생들과 좀 더 가까워지고 싶어요. 학과 사무실이 편하게 찾아올 수 있는 장소가 되어서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자신의 꿈을 이루고 우리 학교를 빛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민지 기자

유아교육과 박희경 조교



1.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아교육과 조교 박희경입니다. 저는 상지대 사회복지과를 졸업한 후에 공무원 준비를 하면서 행정 업무에 관심을 갖게 되어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평소 행정 업무와 관련된 일을 하면서 새로운 경험도 해보고, 그에 대한 경력도 쌓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 중에 송호대학교 유아교육과 조교 구인공고를 알게 되어서 지원을 하게 되었어요. 조교라는 자리가 누구에게는 별게 아니라고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학교라는 익숙한 틀에서 새로운 자리를 경험하고 그동안 경험해 보고 싶었던 업무를 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여서 지원하게 되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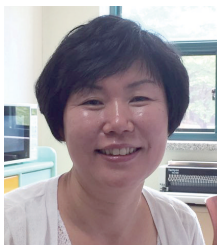
2. 조교님은 어떤 일을 하나요?
저는 학과 운영에 전반적으로 도움을 주는 일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시간표 편성, 성적 입력, 공문을 발송하는 등의 행정적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3. 대학생활에 비추어서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사회복지과에서 4년간 대학 생활을 하면서 1년의 실습 기간을 제외하고는 학생회 임원 활동으로 학과 학생회에서 1년, 단대 종학생회에서 2년을 활동하였습니다. 생각해보면 저는 공부도 열심히 하고 노는 것도 공부 못지않게 열심히 하는 학생이었어요. 여러분도 학교생활을 한 가지에 치우치기보다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신나게 놀기도 하고 또 학교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다양한 경험을 쌓는다면 좀 더 보람된 대학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4.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한 학생과 자격증 취득과 관련하여 상담하는 일이 있었는데 저도 아직 잘 모르는 상태여서 여기저기 도움을 요청하여 그 학생에게 알려주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일이 잘 마무리되자 학생이 고마워하는 모습에 저도 학생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서 뿌듯했던 기억이 납니다. 처음 맡은 업무라서 낯설고 아직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교수님들과 교내에 계신 선생님들께서 많이 알려주시고 도와주시는 덕분에 큰 어려움 없이 금방 적응하여 이제는 얼른 학생들과 소통하고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이에요. 상담테이블과 다과, 차를 준비하여 여러분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으니 학과 사무실과 저를 어려워하지 말고 언제든지 편안한 마음으로 문을 두드려주세요.

소선민 기자

사회복지과 조진자 조교



1.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려요.
올해 2월에 우리대학교 사회복지과를 졸업한 뒤, 사회복지과에 대한 애정이 남달라서 다시 조교로 오게 되었습니다.

2. 조교님은 어떤 일을 하나요?
주로 학과행정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과에 대한 공문 처리, 행사, 실습, 학생들과 관련된 업무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3. 다른 과에는 없는 사회복지과에만 있는 매력은?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생각하고, 옹호자, 상담자, 조력자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클라이언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야하는 직업인이죠. 때문에 약자들을 위해 사회적으로나 정책적으로나 민감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사회복지사들에게 찾아오는 클라이언트들에게 각각 알맞은 서비스를 제공해 주어 클라이언트들의 행복, 즉 삶의 질이 향상되어지는 사회복지사의 궁극적인 목표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어떤 한사람이 우리 사회복지사들에 의해서 삶 자체가 좋은 방향으로 바뀌게 된다면, 이것만큼이나 매력적인 직업은 어디에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러한 매력이 사회복지과에만 있는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4.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사회복지과는 다양한 연령의 학생들이 있어요. 젊은 학생들은 젊은 학생들답게 즐기면서 학교생활을 했으면 좋겠고, 성인 학습자들은 성인 학습자들대로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왔으니 열심히 하는 분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지금은 처음이라 마음만 급하고 아는 것이 없어서 적응하기 위해 노력중이예요. 그러나 얼른 일을 파악하여 사회복지과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영 기자

학과 탐방

국가고시 합격률 100%에 입학정원 증원까지 날로 발전하는 간호과

나의 생명 나아가 나의 가족의 생명과 건강 유지를 증진시키며 관리해 줄 수 있는 현대 시대에 꼭 필요한 간호과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 간호과는 어떤 과인가요?

우리대학교의 간호과는 정의, 노력, 사랑의 교훈을 바탕으로 인류애와 봉사정신을 함양시키고 체계적인 간호교육을 통하여 간호대상자(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가족, 지역사회의 건강증진과 질병 예방, 회복 및 안녕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과학적 간호지식과 실무능력을 갖춘 간호사를 양성합니다. 또한 전인간호를 실현할 수 있도록 인문, 사회, 자연과학 등과 간호과학을 통합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 간호과 수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과학적인 간호지식과 실무능력을 함양하기 위하여 간호학 개론, 성인간호학, 여성간호학 등의 기본 이론 수업과 임상실습을 병행하여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다른 과와 다른 점

다른 과와 달리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전문인을 양성하기 때문에 간호교육의 전문적 특성화를 통해, 경쟁력과 창의력을 갖춘 실무능력과 전문인으로서의 인성을 보유한 간호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 교수님들의 특징

윤성자 교수님은 외유내강의 모습으로 항상 열정이 넘치시고,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 열심히 지도해주십니다.

변미경 교수님은 항상 밝고 긍정적이며 에너지 넘치는 모습으로 학생들의 본보기가 되시고 따뜻하게 품어주십니다.

안미정 교수님은 이번 학기에 새로 오신 분으로 기대가 매우 큽니다. 그리고 홍경숙 교수님은 차분하시고 인자하신 모습으로 학생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시고, 학생들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주십니다.

■ 졸업 후 진로와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

* 취득자격

간호사 면허증(국가고시)

* 졸업 후 진로

- 간호직 : 임상간호사, 전문간호사(정신보건, 가정, 마취, 장기이식 코디네이터, 임상전문 등)
- 보건직 : 보건직 공무원, 보건간호사, 산업장 간호사, 국가공무원
- 해외취업 : 미국, 호주 등 해외취업
- 진학 : 학사편입(RN-BSN외)등 학사학위 취득 후, 일반대학원, 건강관련 특수 대학원
- 창업 : 보육기관, 요양기관, 의료관련 벤처
- 기타 : 보험심사직, 간호장교, 연구원 외

김효정 기자



◇2015신입생들의 풋풋한 모습



◇국가고시를 보러가는 선배들을 응원하고 있는 모습



◇나이팅게일선서식을 마치고

간호과의 새로운 얼굴, 안미정 교수

2015년 2학기부터 간호과에 안미정 교수님께서 함께 하신다. 제주 한라대학교 간호학과에서 조교수로 근무하시다가 우리대학교로 오시게 되셨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횡성군 정신건강센터 운영위원의 일도 맡고 계신다. 앞으로 간호과 학생들과 함께하실 안미정 교수님을 만나보았다.



1. 우리대학교에 온 계기는 어떻게 되시나요?

좀 엉뚱한 이유일지도 모르지만 첫째는 집에서 가장 가까운 학교라서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임용 면접에서 인성검사를 하셨는데 송호대학교는 교직원의 인성을 중요시 하는 대학이라는 인상을 깊게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인성의 중요성을 항상 강조하면서 생활해 온지라 망설임 없이 송호대학을 선택하였습니다.

2. 교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교육관이나 인생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우선 저의 인생관은 '隨緣樂命(수연낙명)'으로 설명하고 싶습니다. 스스로에게 닥쳐온 모든 일들이 나에게 인연이 되는 일이니 거부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이 받아 들여라는 말입니다. 이에 하나 더 덧붙이자면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한 사람이 되자'고 스스로에게 다짐하면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언제나 얼굴에 항상 밝은 웃음을 잃지 않으며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즐겁게 생활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관이라고 하게에는 너무 거창하고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학생 개개인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하게 함으로써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며 올바른 인성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선생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자로서의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명감이 없으면 자기 행동에 대한 지침의 부재가 오므로 가르치는 사람은 꼭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에 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간호과의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질문이 참 어렵군요. 사실 저는 간호과의 매력과는 상관없이 유년시절 아버지의 직장에서 놀던 경험에서 자연스럽게 간호사라는 직업을 가지게 되었습니만 질문을 하셨으니 현명하게 답을 해야겠지요.

우리 간호과는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국가고시에 합격을 하고 나서 간호사가 되면 첫째, 자율성, 권한, 책임감의 특징을 갖추고 인류와 사회에 봉사하고, 둘째, 특별한 지적인 식견과 기술과 방법을 갖춘 과학적인 간호를 제공하고, 셋째, 장기간 정밀한 학문적인 준비교육이 필요한 직업이기에 무척 흥미롭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상과 지역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구성원들의 건강과 안녕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직이고, 간호를 통하여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4. 간호과나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나 조언 부탁드립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책 제목처럼 여러분은 모두 무엇인가에 아프고 혼란과 불안 속에 있는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저 역시 여러분과 같은 시기를 겪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도 많이 하고, 많이 아파도 보고, 직·간접적인 경험들도 많이 해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책을 많이 읽으시라고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힘들었을 때, 정말 가족도 위로가 되지 않을 정도로 힘들었을 때 제가 힘을 낼 수 있게 해주었던 것이 책이었거든요. 책으로 웃고 웃으며 위로받았고 다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해주었습니다.

너무 평범한 말들만 해드려서 좀 미안합니다만 평범함 속에 진실이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송호대학교에 오게 되어 기쁘고 이렇게 인터뷰 하게 되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소선민 기자

신입생들의 방학생활

대학에 들어와서 처음 맞는 여름방학. 신입생들은 설렘을 가지고 방학을 계획하고 보냈을 것이다. 친구들과 여행도 가고, 자격증을 따거나 새로운 공부를 시작하는 등 나름대로 여유로운 시간을 가지면서 여름방학을 보냈을 거란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생각해보니 다른 학생들은 어떤 시간을 보냈나 궁금했다. 그래서 송호인들의 뜨거웠던 여름방학 생활에 대해서 취재해보았다.

◆ 김다애 (유아교육과 1)



이번 방학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라면 유럽여행을 꼽을 수 있습니다. 7월 9일부터 8박 10일 동안 엄마와 함께 둘만의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계획할 때부터 설레고 어떤 여행이 될까 궁금하고 기대가 되는 여행이었습니다. 우리가 정한 나라는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스위스였습니다. 4개의 나라들을 돌며 외국의 아름다운 풍경을 구경하기도 하고, 쇼핑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엄마와 둘만의 추억을 만들기 위해 대학생이 된 기념으로 떠난 여행. 이번 여행에서는 외국의 멋진 풍경도 좋았지만 서로를 더 알게 되고 엄마의 사랑을 듬뿍 느낄 수 있었던 것이 참 좋았습니다. 또 기회가 된다면 엄마와 둘만의 여행을 다시 가고 싶습니다.

◆ 모보미(사회복지과 1)



대학생활의 첫 방학 중 7월 27일부터 29일까지 교회에서 대관령으로 국내 선교를 하러 갔다. 어릴 때부터 선교활동을 하고 싶었는데 기회가 닿지 않아 아쉬웠었다. 그런데 이번에 선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흔쾌히 선교활동을 하러 갔다.

선교는 어린이팀, 식사팀, 전도 봉사팀으로 나뉘어 활동을 했다. 어린이팀에서는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고학년까지의 학생들에게 공부도 가르치고, 함께 게임을 하면서 선물도 주고 율동도 가르쳤다. 순수하기만 한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나도 따라 자꾸만 웃음이 나왔다. 전도 봉사팀에서는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나눠드리고, 노인회관을 찾아가 말동무도 되어드리는 봉사를 했다. 우리를 보고 좋아하시는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니 마음 한 켠이 뭉클했던 시간이었다.

◆ 조재희(임상병리과 1)

성인이 되었으니 너무 부모님께만 의존하지 않기 위해 방학 동안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했다. 대학에 들어와서 하게된 첫 아르바이트는 횡성군청에서 업무보조 역할이었다. 도시행정과에 소속되어 해당 업무를 보조하는 일을 했는데 처음에는 잘 알지 못해 서투르기만 했다. 그러나 배우는 자세로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하다보니 점차 시간이 지날수록 맡겨주시는 일을 잘 처리할 수 있었다. 또한 이를 통해 공무원이 하는 일에 대해 알게 되었다. 여행을 떠나거나 하는 특별한 생활은 아니었지만 아르바이트를 통해 사회를 경험하고 나의 또 다른 능력을 개발할 수 있어 좋은 경험의 시간이었다고 생각한다.

◆ 김은선(치위생과 1)



'이 방학을 어떻게 보람차게 보낼까?' 고민하던 저는 대학교에서 처음으로 맞이하는 방학인 만큼 알차게 보내기 위해 필리핀으로 봉사활동을 계획했습니다.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준비할 것이 많은데 아직 학생이라 혼자의 힘으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같이 가기로 한 친구들과 자선 바자회를 통해 그 부족한 것을 채우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계획하고 준비하여 8월 4일부터 8월 12일까지 교회를 통해 선교를 목적으로 봉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필리핀 아이들은 영어 대신 '따갈로어'라는 언어를 사용하는데 말이 잘 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교감하며 새로운 문화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봉사를 하러 간 지역의 열악한 환경을 보고 앞으로 더 많이 봉사활동을 해야겠다고 느꼈습니다. 이번 필리핀봉사를 통해 다양한 경험도 하고 더불어 사는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었습니다.

신재영 기자

교·수·칼·럼

송호 꿈나무들이여! 예절바른 송호인이 되자!



박 달 수 교수
(스포츠레저과)

나 역시 80년 초에 꿈을 가지고 캠퍼스 생활을 하면서 예(禮)의 중요성에 대하여 학창시절에 깊이 인식하면서 학교생활을 했었다. 모든 학생들은 꿈과 포부를 가지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면서 가슴 벅찬 학교생활을 영위하고 각자의 가치관을 확립해서 보다 좋고 보람있는 학교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80년 초 그 시절 캠퍼스생활이 아련히 스치면서 체육대학생들의 근본인 예절바른 성품과 인성에 대해 너무나 많이 들으면서 스스로 바른 성품과 인격을 쌓는데 노력했었다. 그렇게 보람차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하기위해서는 첫째도 둘째도 예절바른 캠퍼스조성이 무엇보다도 꼭 필요하다고 본다.

지금까지 우리 캠퍼스에서도 학생들을 비롯한 모든 구성원들이 서로가 얼굴을 보면 웃으면서 인사하는 모습이 참 아름답게 보였다. 지금 보다도 더 적극적인 자세로 학생들은 물론 스승과 제자 간에도 예절바른 캠퍼스 조성에 앞장서야 되겠다.

프레이어 스타크란 사람의 명언을 보면 '예의범절이란 수학의 0과 같은 것' 이라면서 그 자체로는 가치가 없지만 다른 것에 붙여지면 가치를 크게 더해 준다고 했다.

예의범절의 본뜻을 살펴보면 예의, 예절은 언어와 같은 것으로 일정한 생활권에 따라 쓰여지는 말이 다르듯이 예의도 일정한 여건 아래에서 생활 방식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언어 문화권과 예의 문화권은 거의 같은 테두리로 형성되는 것이다. 즉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생활 예절도 같은 것이다.

먼저 예의, 예절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 가를 살펴보자. 예의 의미는 예(禮)자를 글자 그대로 풀이해 보면, 보일 시(示)변에 풍년 풍(豊)자로서 풍성하게 보인다는 뜻이다. 즉 몸에 옷을 입어서 풍성하게 보이고 남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예란 나의 행동과 언어를 통하여 남에게 보이는 것이지 마음속의 깊은 내면세계를 다루는 것이 아니다. '예란 다른 사람과의 생활에 있어서 남을 손상시키지 않는 것이며 마음에 들도록 처신하는 것이다' 또는 '상대방에 대하여 자기 자신의 뜻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 의하여 자기 자신을 바꿀 수 있는 능력에 예의범절의 본질이 있다'고 서양학자들은 말하고 있다.

반면에 예절은 예의범절의 약칭이다. 예의범절이란 사람이 대인관계를 할 때 상대방을 대접하기 위하여 마땅히 지켜야 할 언어·행동상의 도리를 뜻하고 의식절차는 관혼상제 등의 방법, 절차를 말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예의란 예의범절과 의식절차를 포괄하는 의미로 볼 수 있고 단지 외견상의 언어 행동을 규제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절을 지킬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인간은 자신의 습관이나 성향을 필요할 때에는 일시나마 물리칠 수 있는 능력과 상대방의 생각을 짐작하고 그의 지난 삶을 체험하기 위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유연한 능력이 있어야 예절을 지킬 수 있다고 한다. 예는 도덕, 윤리적 행위를 실천할 수 있는 기본적 본질로서 작용하는 것이다. 남에게 방해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 행위로써 당위성이 요구되고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미워하면 스스로 복을 받지 못한다'하는 측면은 종교적 내지 윤리적 입장인 것이다.

넓은 의미로 예란 '모든 것을 다스려 질서 있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고 또한 '모든 것을 이치에 맞게 하는 것'이라는 가르침도 있다.

이같이 예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고 예절의 재건과 실천을 위해 충효 교실을 설치해 지도하고 있는 곳이 성균관과 향교이며 그것을 주축으로 하는 전국의 유림(儒林)이 중심이 되고 있다.

위와 같이 예의범절은 스스로 지키면 자기의 본연의 위치가 남으로부터 인정받게 될 것이다. 특히 우리 송호 학생들은 캠퍼스 내에서 가장 예의를 지켜야 할 사항은 흡연문화인 것 같다. 흡연을 하는 학생들에게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 교내에 흡연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었기에 그 장소에서 하면 주위에 있는 동료들에게 간접흡연은 되지 않을 것이다. 그것 또한 흡연에 대한 기본 예의라고 볼 수 있다.

덕고산 아랫자락에 위치한 아름다운 캠퍼스의 맑은 공기를 더욱 아름답게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 송호 학생들은 분명히 지켜 나갈 수 있다고 본다.

●●●《인문학 강좌》 제 2편 ●●●

한국의 명시(名詩) 감상(鑑賞)-1

- 詩人의 典範이 된 白石의 詩세계 -



사무국장 김 현 우
전 은광여자고등학교·
은성중학교 교장

5. 아름답고 슬픈 러브스토리



시인 백 석

가난한 내가
아름다운 나타샤를 사랑해서
오늘밤은 푹푹 눈이 나린다

나타샤를 사랑은 하고
눈은 푹푹 날리고
나는 혼자 쓸쓸히 앉어 소주(燒酒)를
마신다
소주를 마시며 생각한다
나타샤와 나는
눈이 푹푹 쌓이는 밤 흰 당나귀 타고
산골로 가자 출출이 우는 깊은 산골로 가 마가리에 살자

눈은 푹푹 나리고
나는 나타샤를 생각하고
나타샤가 아니 올 리 없다
언제 벌써 내 속에 고조곤히 와 이야기한다
산골로 가는 것은 세상한테 지는 것이 아니다
세상 같은 건 더러워 버리는 것이다

눈은 푹푹 나리고
아름다운 나타샤는 나를 사랑하고
어데서 흰 당나귀도 오늘밤이 좋아서 응앙응앙 울을 것이다
–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전문 –

"가난한 내가/ 아름다운 나타샤를 사랑해서/ 오늘밤은 푹푹 눈이 나린다"는 표현은 문장구조의 인과관계를 무시하는 충돌이거나 모순이다. 첫눈이 내리는 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는 말은 백석 이후에 죽은 문장이 되고 말았다.

백석의 이 시가 사랑의 도피를 꿈꾸는 낭만적 정서를 읊은 것이라면 '나타샤'라는 여주인공 이름만큼 그 낭만성을 표상하는 단어는 없다. '나타샤'는 이 시를 읽는 모든 이들에게 '동경과 이상의 여성상'을 꿈꾸게 하고 진부한 일상에서 헤어나고픈 방랑자적 인간 본성을 부추긴다. 백석이 남긴 이 名篇으로 인해 '나타샤'는 이상화의 '마돈나'와 함께 모든 마음이 가난한 남자들로 하여금 낭만적 사랑의 도피행을 꿈꾸게 하는 견고한 여성 대명사로 자리 잡았다.

이 시의 '나타샤'는 백석이 함흥 영생고보 교사시절에 만나 사랑을 나누었던 김진향(자야, 본명 김영한)을 주인공으로 하여 쓴 시로 알려져 있다. 대원각의 여주인이 된 김영한은 법정스님의 '무소유'를 접하고 느낀 바 있어 당시 시가 1,000억원이 넘는 재산 일체를 불도량으로 기증하게 되는데 이곳이 서울 성북동에 있는 '길상사'이다.

백석의 영원한 연인이었던 자야 여사는 1995년 〈내 사랑 백석〉을 발간하여 애절하고도 정열적인 그들의 짧지만 영원한 사랑을 우리들에게 남겨 주게 된다. 후에 기자가 천억을 기증한 것이 아깝지 않느냐고 물었을 때 '천억이 그 사람의 시 한 줄만도 못하다'고 말하면서 다시 태어나면 자기도 시를 쓰고 싶다고 말했다.

6. 굳고 淨한 갈매나무를 꿈꾸며…

어느 사이에 나는 아내도 없고, 또,
아내와 같이 살던 집도 없어지고
그리고 살뜰한 부모며 동생들과도 멀리 떨어져서,
그 어느 바람 세인 쓸쓸한 거리끝에 헤메이었다.
바로 날도 저물어서
바람은 더욱 세게 불고, 추위는 점점 더해오는데,
나는 어느 목수 (木手)네 집 헌 삿을 깐,
한 방에 들어서 쥔을 붙이었다.

中 略

나는 이런 저녁에는 화로를 더욱 다가끼며, 무릎을 꿇어보며,
어느 먼 산 뒷옆에 바우섶에 따로 외로이 서서
어두어 오는데 하이야니 눈을 맞을 , 그 마른 잎새에는
쌀랑쌀랑 소리도 나며 눈을 맞을,
그 드물다는 굳고 정한 갈매나무라는 나무를 생각하는 것이었다.
–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 (南新義州 柳洞 朴時逢方)〉 전문 –

'남신의주 유동에 사는 박시봉씨네'라는 뜻의 제목을 가진 이 시에는 곤궁하고 난처한 시절을 만나, 가족들과 뿔뿔이 흩어지고 깃들일 터전을 잃은 사람의 심사와 그와 같은 난국을 벗어나려는 정신적 노력이 잘 드러나 있다.

시의 문맥으로 미루어 볼 때 시적 자아는 '박시봉'이라는 목수의 집에 임시로 세들어 살고 있다. 가족과 떨어져 홀로 객지에 나와 '습내나는 춥고, 누긋한 방'에서 슬픔과 어리석음으로 얼룩진 자신의 삶을 돌이켜 보면서 회한(悔恨)에 젖는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런 자신의 삶을 자신의 의지와 무관한 운명의 탓으로 돌림으로써 운명론적, 수동적인 세계관에 빠져드는 기미를 보여주기도 한다. 하지만 마지막 행에 이르면 시적 자아는 '굳고 정한 갈매나무'처럼 굳세고 깨끗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7. 맺는 말

백석의 시 가운데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4편을 중심으로 감상해 보았다. 이밖에도 〈여우난곬족〉, 〈모닥불〉, 〈정주성〉 등을 찾아 읽기를 권하고 싶다. 백석 시의 특징은 상실되어가는 고향의식의 회복, 이를 통한 제국주의 문화의 극복, 전통문화유산에 대한 따뜻한 긍정, 백석 특유의 방언주의와 북방정서 등으로 정리될 수 있다.

백석은 '시인이란 세상의 온갖 슬프지 않은 것에 슬퍼할 줄 아는 영혼을 지닌 사람'이라는 의미 있는 말을 하고 있다. 백석이 말하는 '슬픈 정신'은 무엇일까? 아마도 세상과 뭇 사물에 대한 크나큰 연민이 아닐까 한다. 모든 것을 다 내 마음속에 애틋하게 수용하고, 특히 모든 소외된 사물들에 대하여 따뜻한 가슴으로 끌어안으려는 불교적 자비심, 혹은 기독교적인 긍휼(矜恤)이나 사랑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윤동주가 <서시>에서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라고 읊은 마음과 상통하는 마음일 것이다. 이렇게 해서 '높은 시름이 있고, 높은 슬픔이 있는 흔' '진실로 인생을 사랑하는 마음' '생명을 아끼는 마음' 등은 모름지기 시인이 가져야할 가장 기본적인 필수 덕목이자 품성인 것이다.

백석의 시가 유난히 작고 가냘프고 여린 것, 외롭고 못난 사물과 가여운 생명들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착을 가지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점에 있을 것이다. 잘나고 거만하고 자신을 뻐기는 존재나 화려한 사물들은 적어도 백석의 문학적 관심에서 일단 벗어나 있다. 그리하여 백석의 시는 독자들로 하여금 이제는 잃어버린 옛 추억의 시간을 회상시키고, 동시에 현실의 각박한 세태로부터 자신을 반성하게 하는 묘한 작용력을 가졌다. 백석은 '낮고 거짓되고 겸손할 줄 모르는' 세태를 비판하였는데, 세상 사람들이 이처럼 추억의 회상과 연민을 경험하고 나면 훨씬 맑고, 그윽하고, 슬퍼할 줄을 알며, 따스한 가슴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믿었던 듯하다.

〈참고 문헌〉
1) 안도현 〈백석 평전〉
2) cafe.daum.net//hopementor
3) 이동순 〈백석의 시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신입기자 취재일기

● 신 재 영



기자가 되기로 결심하기 전, 사회복지과 학과장님의 기자를 모집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관심을 가지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결심을 하지 못했죠. 뭔가 나서서 하는 성격이 아니라 조금 망설였습니다. 그래도 이제 스무살이 되었으니 용기를 가지고 뭔가를 할 나이도 되었다는 생각이 들어 학과장님께 이것저것 궁금한 것도 여쭤보고 학과장님의 격려로 기자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또한 글을 짜임새 있게 쓰지 못해 글 쓰는 방법을 배우고 싶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신문기자를 하면 글을 어떻게 쓰는지 배울 수 있으므로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서 하겠다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기자가 된 후 매번 기사를 쓸 때마다 어려웠습니다. 내가 쓰고 있는 방식이 맞는 건가도 싶고, 육하원칙을 적어놓고 글을 쓰긴 했지만 뭔가 내용이 좀 짧기도 하고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이나 신문기사를 보면서 '이런 식으로 쓰는구나'하고 스스로 찾아보면서 기사를 썼던 기억이 납니다.

기자를 하다 보니 제게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관심을 가지지 않던 것에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고 조사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관심사가 아니면 관심도 가지지 않는 편이었는데 기자가 된 후 기사를 쓰기 위해 이것저것 찾아보면서 관심사가 아닌 것에도 관심을 가져보고 관련된 내용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자를 하면서 변화된 나의 모습을 보니 '기자'라는 좋은 기회를 잡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전 민 지



나는 유년 시절에 신문을 꽤 친근하게 여겼던 것으로 기억한다. 매일 아침 출근길에 신문을 보고 나가시던 아버지 모습을 따라하겠다며 잘 읽지도 못하는 신문 위에 누워서 놀았던 기억, 초등학생이 되어서는 학교에 비치된 신문을 이용한 N.I.E와 우리 가족 신문 만들기 활동을 재미있게 했던 기억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난 아직도 그 시절 신문의 바스락 거리던 소리와 잉크 냄새가 떠오른다. 그렇게 오늘날 대학생이 되었는데 주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수습기자 모집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솔깃하여 '혹시 나도 할 수 있으려나.' 싶었다. 글쓰기에도 자신이 없고, 카메라를 정식으로 잡아본 적도 없기 때문에 지원하고 며칠 내내 떨었는데 수습기자 조건이 '배우려는 열정'뿐이어서 정말 다행이었다. '미생'에서 '장그래'가 이야기 했듯이 나의 노력은 '새빠진 신상'이니까 지금부터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겠다는 생각으로 시작한 지금, 수습기자라는 이름에 기쁘고 뿌듯하다.

또한 교내 소식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우리 학교에 자연스레 큰 애정이 생겨나는 것에도 감사한 마음이다. 얼른 우리가 처음 만든 신문이 발간되면 좋겠고 올해 안에 우리 학보사 3기 동기들이 수습기자에서 정식기자로 발돋움하고, 학보사만의 공간이 생겨서 내년에는 후배들을 반갑게 맞이하며 신문을 만들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